정영일 '에인절스 유망주 4위'

〈광주진흥고〉

재미동포 포수 최현 6위에 선정

베이스볼아메리카 발표

사상 첫 메이저리그 한인 배터리를 노리는 '괴물' 투수 정영일(18·광주진흥고)과 한국계 포수 최현(18·미국명 행크 콩거)이 나란히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를 이끌 '톱10 유망주'로 선정됐다.

미국 아마추어야구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격주간지 베이스볼아메리카(BA)는 24일 인터넷판(www.baseballamerica.com)에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유망주를 발표하면서 올해 입단한 정영일과 최현을 각각 에인절스의 톱10 유망주 4위와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완 정통파 정영일은 188㎝, 96㎏의 좋은 체격에 직구 최고구속이 149㎞에 이르는 빠른 공을 장착했고 국내 연고구단 KIA에 1차 지명됐지만 입단을 포기하고 지난 7월 에인절스와 계약해 한국 선수로는 31번째로 메이저리그 구단에 입단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대통령배 전국대회 경기고와 1회전에서 13.2이닝 동안 국내 고교야구 최다인 23개의 삼진을 뽑아내 이 부문 신기록을 세우며 무려 242개의 공을 던졌고, 청룡기에서도 다섯 경기에 등판해 총 700개의 공을 뿌리는 '강철 어깨'를 자랑했다.

또 한인 사상 최초로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5순위로 에인절스에 지명된 재미동포 최현은 183㎝, 93㎏의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포수로는 드물게 스위치히터인데다 장타력과 강한 어깨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은 지난 9월 애리조나 교육리그에서 만나 방을 함께 쓰며 3~4년 안에 에인절스의 메이저리거로 배터리 호흡을 맞추자고 다짐했다.

빅리그에서 130타석과 50이닝을 채우지 않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톱10 유망주 1위는 유격수 브랜던 우드(21)가 뽑혔고, 우완투수 릭 아덴하트(20)와 유격수 에릭 아이바(22)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BA는 4위에 오른 정영일과 관련, 건장한 체격과 강속구가 강점이라고 소개한 뒤 장래 팀의 제2 선발 또는 제 3선발감이라고 평가하고 스프링캠프를 거쳐 마이너리그 싱글A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위로 평가된 최현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 고교 시절 34개의 홈런을 때리는 등 슬러거 자질이 갖췄다고 평가하고 빅리거로 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태환, 세계 수영계 10대 '좋은 뉴스'에

범태평양대회·아시안게임 성과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이 2006년 세계 수영계 10대 '좋은 뉴스'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24일(한국시간) 수영전문 온라인매체 '스윔뉴스닷컴'에 따르면 박태환이 지난 8월 캐나다 범태평양수영대회와 이달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올해 이룬 성과가 '좋은 뉴스' 10개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이 매체는 박태환의 성과 및 도약을 최근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 수영의 발전 및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향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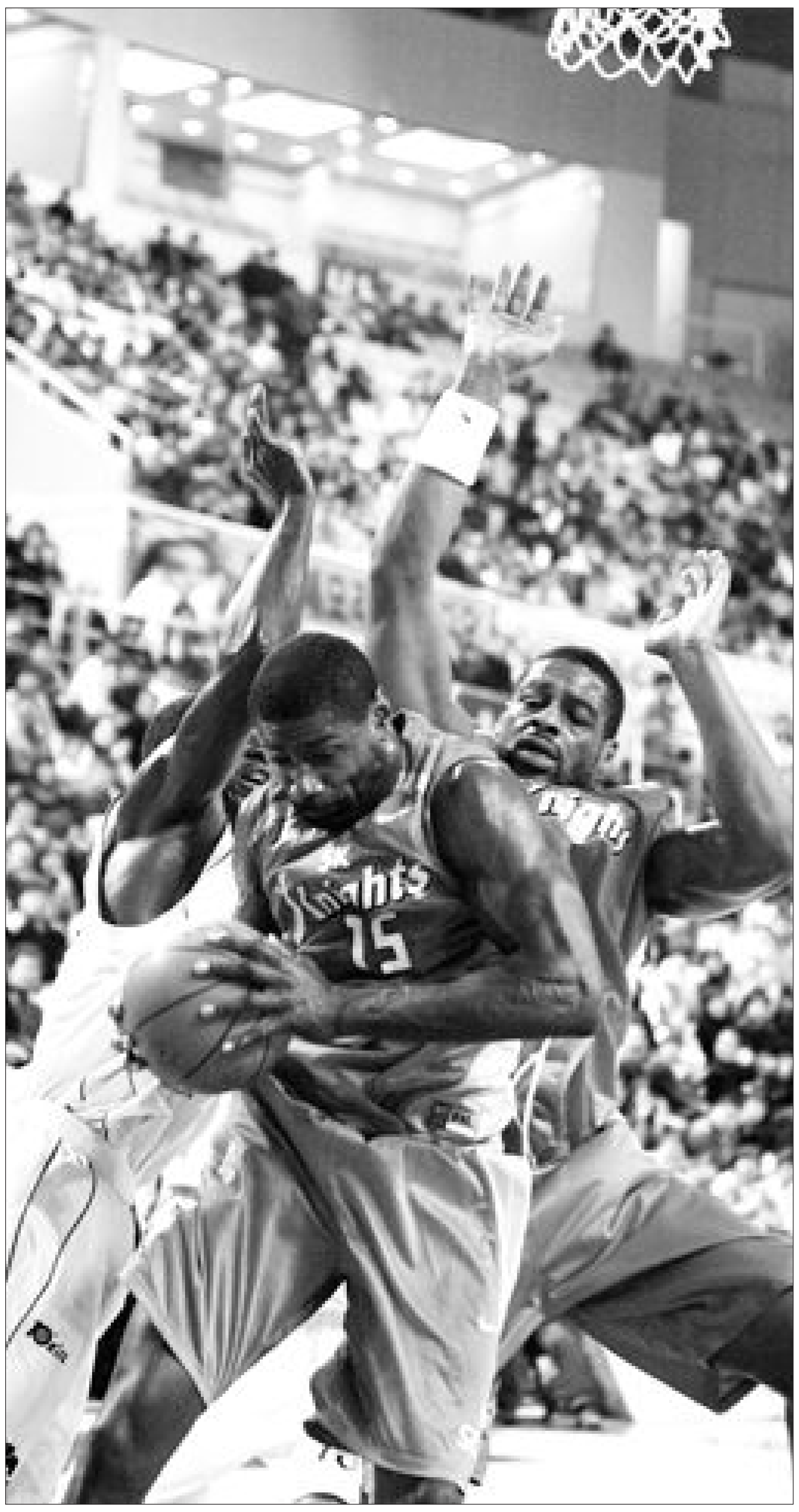
박태환은 범태평양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클레트 켈러와 에릭 벤트, 피터 밴더케이(이상 미국) 등 세계적 강자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자유형 200m, 400m 1,500m에서 장린(중국), 마쓰다 다케시(일본) 등 아시아 라이벌을 누르고 아시아 자유형 최강자로 우뚝 섰다.

특히 아시안게임 1,500m에서는 아시아신기록(14분55초03)으로 우승, 수영 역사상 '마의 15분' 벽을 뛰어넘은 '철인' 1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수영 스타 반열에 올랐다.

박태환 외에 올해 2번씩이나 여자 자유형 400m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운 '수영 여제' 로르 마나우두(프랑스)와 여자 평영 100m, 200m 세계신기록을 작성한 라이젤 존스(호주) 등이 10대 좋은 뉴스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한편 올 한해 계영 및 혼계영을 제외하고 개인이 작성한 세계신기록은 미국의 수영신동 마이클 펠프스가 범태평양대회에서 세운 접영 200m(1분53초82)와 개인혼영 200m(1분55초84) 등 총 12개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NBA인줄 알았네

24일 인천 삼산 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와 서울 SK의 경기에서 흑인선수간 치열한 볼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SK의 루로가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다. /연합뉴스

KIA 그레이싱어 日 야쿠르트 입단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우완투수 세스 그레이싱어(31)가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유니폼을 입는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호치'는 그레이싱어가 야쿠트르와 연봉 40만달러에 플러스옵션을 받는 조건으로 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지난 23일 전했다.

그레이싱어는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내년초 정식으로 계약할 예정이다.

2005년 7월 KIA에 입단한 그레이싱어는 올 시즌 14승12패, 탈삼진 164개, 평균 자책점 3.02를 기록하며 에이스로 활약했다. 올해 KIA에서 받은 연봉은 30만 달러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진전"

IOC 밝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2일 남북한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출전 문제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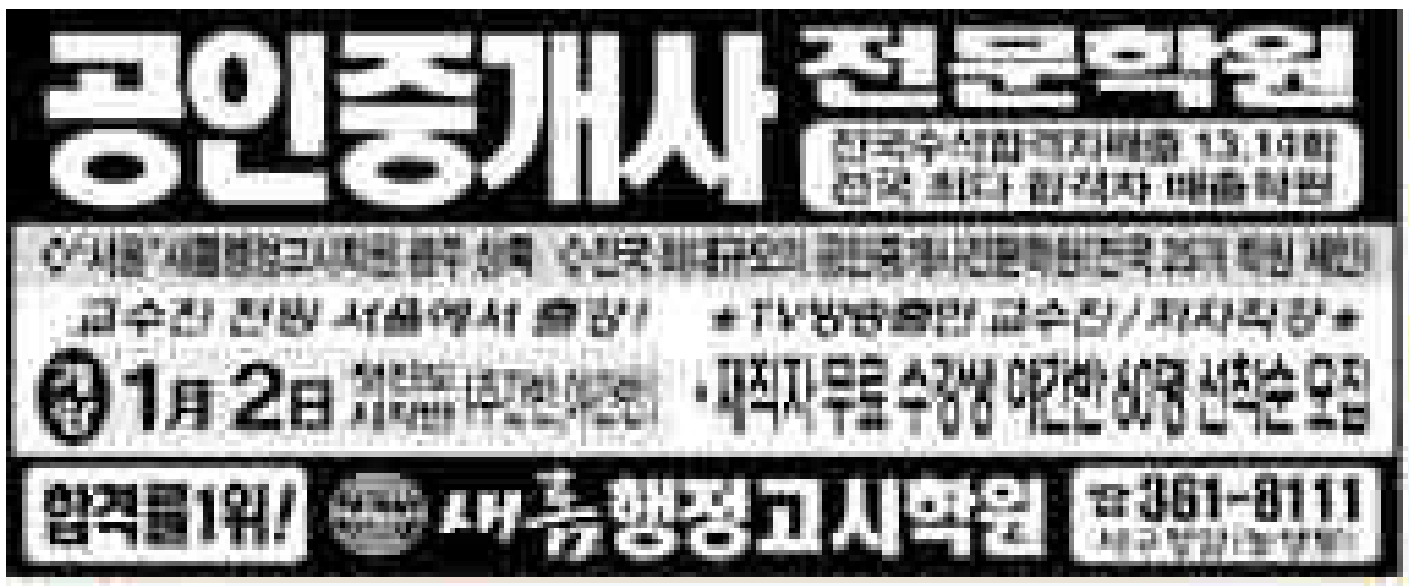
IO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한은 2004년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특히 올 9월 IOC 본부에서 만난 이래 놀라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며 "이는 스포츠 및 올림픽 정신을 통해 단일팀 구성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며 IOC는 남북한 올림픽위원회가 계속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중계

25(월)

▲NFL〈잭슨빌 : 뉴잉글랜드〉(02 : 50·SBS스포츠)

▲V리그〈대한항공 : 한국전력〉(13 : 30), 〈GS칼텍스 : 현대건설〉(16 : 00·KBSN Sports)

▲2006 올스타 자선 축구(14 : 10·KBS1)

▲프로농구〈동부 : 모비스〉(14 : 50·Xports)